

# 49재에 참여한 유족들의 애도 경험 연구

임해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회복지학 전공  
hae0629@hanmail.net

- I. 머리말
- II. 문헌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맺음말

## I. 머리말

시누라고 그러지만 참 각별했어요. 때로는 친자매 같고, 친구 같고... 어쩔 땐 쑥덕쑥덕 싸우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는데... 어휴! 그 정이 얼마나 깊어요..... 그 세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연구주인공 3)

한 연구주인공<sup>1)</sup>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에게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며, 이것을 성스러운 의식과 절차로 승화하는 과정이 애도 의례라고 할 것이다.<sup>2)</sup> 그래서 애도 의례는 유족들이 망자와의 사별로 인한 슬픔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며, 이 장을 통해 유족들은 망자와의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게 된다.<sup>3)</sup> 이러한 이유로 산자가 죽은 자를 위무하고 사별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의 기제로서 애도 의례를 주목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일 수록 노화에 따른 예견된 죽음이 아닌, 각종 재난재해, 교통사고, 화재, 건물 붕괴, 자살 등의 급작스러운 죽음<sup>4)</sup>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

1) 이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참여자, 연구대상자라는 용어 대신 연구주인공(主人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란 용어는 인간의 참된 마음인 불성(佛性)을 표현하는 불교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주인공의 의미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이 49재라는 실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한 의미들을 어떠한 걸림 없이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49재라는 불교 의례와 유족들의 애도 심리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불교적 언어를 차용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법원 편집부 저,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94), 1450쪽.

2) 정진홍은 죽음을 의례를 통하여 의미 있는 현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싶은 의미를 그 죽음을 통해 빚어내게 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죽음 의례 안에 있는 죽음은 그 의례가 낳는 그물 속에서 풀이되고 해석된다. 정진홍, 『죽음 의례와 죽음』, 『죽음의례와 죽음 한국사회』(모시는사람들, 2010), 16쪽.

3) 이범수, 「유교 상례와 불교 우란분제 · 49재에서의 유족심리」,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2008), 107쪽.

4) 2013년 기준 연령별 3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0-30대까지는 자살(고의적 자해), 운수사고, 암에 의한 질병(악성신생물) 순이었으며, 40-50대는 암에 의한 질병(악성신생물), 자살이, 60대 이상은 암에 의한 질병(악성신생물), 각종 질환 순으로 죽음의 원인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이나 사고에 의한 비정상적 사망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남겨진 유족들의 애도과정을 탐색하고 지지하기 위한 기반 연구는 필요하다 하겠다. 통계청, 「2013 사망원인 통계」, 『인구통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처럼 죽음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좀 더 고귀하게 승화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망자의 죽음에 대한 유족들의 비통함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애도 의례는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망자를 위한 애도 의례는 전통적으로 종교 의식이나 무속의 굿 행위 등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불교의 49재, 우란분재 등의 천도<sup>5)</sup> 의식, 가톨릭의 경우 연도<sup>6)</sup>, 삼우제 미사, 49재 미사, 무속의 씻김굿, 오구굿 등과 같은 사령제(死靈祭)<sup>7)</sup>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한 사람들을 가장 근접에서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인 사회복지실천 영역은 이러한 종교의 전통적 실천원리인 애도 의례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20세기 중반 이후 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계는 종교로부터 사회복지를 분리하여 사회과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도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영적 또는 종교적인 실천원리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8)</sup>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이 이웃사랑, 자비, 지혜, 감사, 은혜 등과 같은 종교계의 핵심적 이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실질적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종교적 실천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sup>9)</sup> 이처럼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지만 종교가 보유한

향』(통계청, 2013), 11쪽.

- 5) 불교에서는 망자를 위한 모든 의례를 천도재라고 하며, 천도제는 불법을 통해 망자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의례를 의미한다. 구미래, 『한국불교죽음의례의 유형과 최근의 변화』, 『죽음의례와 죽음 한국사회』(모시는사람들, 2010), 87쪽.
- 6) 가톨릭에서 연도는 우리나라 전통가락에 맞추어 바치는 한국 천주교의 고유한 기도 형태로, 죽음 이후 죄의 정화를 위해 고통 받는 영혼을 정화하기 위하여 드리는 위령기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일영, 『천주교 일생의례의 종교적 특성과 세계관』, 『비교민속학』 제39집(2009), 142-143쪽.
- 7) 사령제란 죽은 이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뜻에서 사령이며, 이러한 사령은 인간에 의해 숭배되어온 것이 상례이다. 불교의 사령제는 49재가 대표적이며, 무속의 경우 진오귀굿, 씻김굿, 망목이굿, 다리굿, 시왕맛이굿, 해원굿 등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네이버,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6c).
- 8) 원지영,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영성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철학』 제27권(2013), 225쪽.
- 9) 전명수, 『종교사회복지담론의 재고찰: 비판적 성찰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제20호(2013), 291쪽.

철학적·문화적 실천원리들은 종교적 신념 혹은 신앙행위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심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치유기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서양의 많은 종교는 고통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의 특성으로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 치유, 구제, 계몽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왔다.<sup>10)</sup> 더욱이 인간은 육체적·물질적 웰빙을 넘어 종교성과 영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 영역이 인간의 이러한 종교적·영적 욕구들을 단지 신앙행위의 차원으로만 국한시켜버린다면,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건강한 학문적·실천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의 폐쇄성을 조장할 뿐이다. 그렇다면 선교 혹은 포교행위로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믿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지양<sup>12)</sup>되어야 하지만, 종교가 담고 있는 실천원리의 어떤 구조와 내용이 사람들의 소통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주목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교의 대표적 애도 의례인 49재에 참여한 불교인을 대상으로 이들은 49재 참여 속에서 망자의 존재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망자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주목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49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애도 의례 관련 연구는 49재를 통한 불교인의 죽음관, 내세관을 탐색하려는 연구<sup>13)</sup>, 49재 형성과정과 의례로서의 의의와 역할, 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족들의 애도 심리를

10) 캔다·필만 저, 박승희·이혁구 외 역, 『종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에서 열알의 다양성』(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75쪽.

11) 전명수, 앞의 논문, 288쪽.

12) 고병철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활동과 사회복지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복지 자원들을 선교 포교 방편으로 사용할 때의 역기능과 종교의 사회복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종교 활동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19호(2011), 274쪽.

13) 구미래, 「의례주체를 통해 본 49재의 존재양상과 문제인식: 대한불교조계종 의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37집(2008);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민속원, 2009); 구미래, 앞의 논문(2010).

불교적 측면에서 탐색한 연구<sup>14)</sup>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경우 49재 및 불교인 유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일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49재를 직접 경험한 유족 당사자들이 이 과정에서 겪은 애도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드러나고 있는지를 경험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근거이론<sup>15)</sup>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의미와 애도 경험의 변화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에 대해 특정한 분석과정을 거쳐서 경험적 차원의 실제이론을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고<sup>16)</sup>,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현상의 사회심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 과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 작업은 49재에 참여한 불교인들의 애도 현상과 관련한 경험적 차원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을 주목해봄으로써, 사회복지 실천 영역 안에서 숙고될 수 있는 유용한 함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고자 이 연구는 '49재에 참여한 유족들의 애도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로 연구 문제를 상정하고자 한다.

---

14) 이범수, 「四十九齋에서의 遺族心理 治癒 촉진 방안」, 『한국불교학』 제49호(2007); 이범수, 앞의 논문(2008).

15) 근거이론은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학자 간 논쟁에 제기된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기덕(2011)과 같은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근거 짓기 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안기덕,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1쪽). 사실 근거이론은 근거제시를 통해 경험적 차원의 실제 이론 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거제시이론구성' 혹은 '근거기반이론구성'이 오히려 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추후 근거이론의 용어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열띤 논의를 기대해본다.

16)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학지사, 2008), 14쪽.

## II. 문헌 검토

### 1. 49재

불교의 생사관은 윤회의 업식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 존재가 4유(四有)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탈을 이루기 전까지는 영원히 죽지 않고 환생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sup>17)</sup> 4유란 인간이 각자의 업에 따라 모태에 의탁하여 태어난 순간의 존재를 생유(生有), 출생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전의 존재를 본유(本有), 죽는 순간을 사유(死有),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존재를 중유(中有) 혹은 중음(中陰)이라고 일컫는다.<sup>18)</sup> 그리고 죽음 이후 49일은 망자가 다음 생을 받기 위해 이승도 저승도 아닌 세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을 중유의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족들은 49재라는 죽음 의례를 통해 망자가 삼악도(三惡道)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를 빌어주는 천도의식을 행하게 된다.<sup>19)</sup> 이처럼 49재는 망자 사후에 영가(靈駕)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한 불교의 대표적 애도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49재는 먼저 장지에서 주검을 처리한 유족들이 곧장 사찰로 향하여 망혼을 법당에 모시는 반혼재(返魂齋)를 올리면서부터 시작된다.<sup>20)</sup> 그리고 망자의 영혼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차와 음식, 공양물을 대접하며 위로와 못 다한 애절함을 나눌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유족들은 망자 상실에 따른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된다. 나아가 망자의 영가로 하여금 신중단(神衆壇)<sup>21)</sup>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불보살의 가피(加被)하에 극락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거행된

17) 고영섭, 「불교가 한국인의 생사관에 끼친 영향」, 『한국불교사연구』 제7호(2015), 98쪽.

18) 위의 논문, 98쪽.

19) 안양규,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교육』(모시는사람들, 2014), 223-224쪽.

20) 구미래, 앞의 논문(2010), 168-169쪽.

21) 사찰에서 호법 신중을 모셔두는 단을 말한다.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신앙 형태도 다양해져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신중(神衆)이다. 신중은 특히 불교가 각 지역의 토속신을 수용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그에 따라 제석천·범천·사천왕을 비롯하여 팔대금강신중과 야차·아수라와 같은 팔부신중 등을 모시는 공간이 필요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신중단이다. 삼단불단이라고 해서 부처나 보살을 모신 것을 상단이라 하고 이단을 중단이라고 부르며, 하단은 일반 망자들의 영혼을 모신 단을 의미한다. 네이버, 『두산백과』(2016b).

다.<sup>22)</sup> 이처럼 49재는 7·7재리는 불교의 정례화된 의례 구조 속에 망자를 맞이해서 그가 생전에 지은 업을 씻어주고, 불보살에게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망자에게 불법을 들려주어 그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망자는 자신의 마음 정화를 위해 49재를 지내는 유족들에게 감사하면서 더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구조를 갖게 된다.<sup>23)</sup>

한편 49재는 망자에 대한 불교계의 정형화된 집단 추모의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찰이라는 시공간에서 승려, 유족, 사찰신도 등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망자를 애도하게 되는 공동체 차원의 애도<sup>24)</sup>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도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으로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제도화한 장례, 추모제 등과 같은 집단적 의식 속에서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망자 상실로 인한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그래서 사회적 애도란 망자와 유족이 소속된 종교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이 부여한 의미 속에서 망자의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애도는 망자와 유족들이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9재에 참여하는 불교인 유족들과 승려, 사찰 신도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적 맥락들을 반영하면서 망자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49재에 참여하는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러한 애도 의례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망자 상실에 따른 자신의 심리적 기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은 어떠한 종교적 맥락의 영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일 것이다.

22) 이범수, 앞의 논문(2008) 133쪽.

23) 안양규, 앞의 논문, 224-225쪽.

24) 김석은 우리 문화에서 사회적 애도의 전형을 '씻김굿'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씻김굿이란 죽은 이의 영혼을 정화하고 부정을 씻어내어 저승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의식이자, 남은 이들이 이러한 의식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삶을 추스르게 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전통적 풍습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씻김굿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망자의 정화와 해원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석, 『햄릿의 파국과 쌍용차 노동자들』, 『애도 받지 못한 자들: 자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쿠북, 2012), 32-33쪽.

25) 위의 논문, 33쪽.

## 2. 애도 경험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없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슬픔 애(哀)’, ‘슬퍼할 도(悼)’라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6)</sup>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도의 의미가 중요한 타인과의 사별로 인해 남겨지게 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다. 스위저(Switzer, 2011)는 사별과 애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사별이 박탈감 혹은 상실의 실질적 상태를 의미한다면, 애도는 박탈에 대한 정서적 고통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27)</sup> 그런데 애도 경험이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연결된 것이라면, 이때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의 반성적 의식작용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8)</sup> 즉, 고통의 감정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의식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그것을 내면화하고 체화한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준칙 등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도 당사자가 망자 상실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애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가족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제시하거나<sup>29)</sup> 사별 후의 심리적 적응으로 우울감, 슬픔, 자기 효능감<sup>30)</sup> 혹은 애도의 변화과정<sup>31)</sup>을 유기적으로

26) 네이버, 『국어사전』(2016a).

27) 데이비드 스위저 저, 최혜란 역,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애도』(학지사, 2011), 18쪽.

28) 손봉호는 고통이란 어느 정도 반성적 의식에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 일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말을 모독으로 이해하며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관심으로 해석하여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의식작용과 정신 능력을 가진 인간의 반성적 의식에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 손봉호, 「고통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집, 43쪽.

29) 강인·최혜경, 「여성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4호(1998); 전미영,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6호(2000).

30) 전미영, 위의 논문; George A. Bonanno, “Grief and emotion: A social-functional perspective,”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손의성,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권(2007); 공수연·

연결시키지 못한 채, 그것을 분절적으로만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애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중요한 타자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들의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속에서 부여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역점을 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유족들의 애도 경험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애도 현상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나타나며, 이것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이 49제라는 애도의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근거이론은 연구주인공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과 의미, 그 경험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의 방법적 특징은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인 비교의 방법, 이론적 포화의 원칙, 범주화 작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32)</sup>

이 연구는 근거이론의 다양한 지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up>33)</sup>의 방법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표본추출은 이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표본을 연구주인공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며, 지속적 비교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개념을 구성하고 구성된 개념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범주의 밀도를 높이는

양성은,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0권 5호(2012).

31) Alan D. Wolfelt, *Death and Grief: A Guide for clergy*(Indiana: Accelerated Development, 1988); 정연강·김경희·최미혜·권혜진·정혜경·안옥희·박성학, 「미망인의 사별 경험」, 『중앙간호논문집』 제2권 1호(1998); 디큰 저, 오진탁 역,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궁리, 2002); Elisabeth Kübler-Ross & David Kessler, *On Grief and Grieving: Finding the Meaning of Grief Through the Five Stages*(Scribner, 2005).

32) 흥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앞의 논문, 13쪽.

33)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엣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한울아카데미, 2000), 76-90쪽.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론적 포화는 더 이상의 유의미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지속하는 것으로, 예컨대 수집된 원자료가 이론과 범주를 충분히 구성할 만큼 적정 수준에 도달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sup>34)</sup> 그리고 범주화 작업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과정분석과 유형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이 연구가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49재라는 애도 의례 속에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심리적 역동성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파악하면서 경험적 실체 이론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주인공 선정과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연구주제에 따른 가장 적합한 연구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질 것, 둘째, 49재의 초재에서 막재까지 7재 모두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시내 사찰 및 사찰 부설 불교대학, ○○대학 불교학 전공 관계자들에게 연구주인공 추천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약 9명의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이 중에서 중도에 탈락한 1명과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개념과 범주 구성에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출현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주인공들에게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 원칙과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와 녹취록 관리, 연구 참여 도중 연구주인공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자발적 중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동의해준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주인공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1과 같다.

34) 유기용·정종원·김영석·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박영사, 2014), 28-41쪽.

35) 위의 논문, 42-47쪽.

표1- 연구주인공들의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	신분	49재 대상	49재 참여 연도
주인공 1	여	44	재가 신도	어머니	2014
주인공 2	여	65	재가 신도	남편	2010
주인공 3	여	56	재가 신도	사누이	2013
주인공 4	여	52	재가 신도	오빠	2015
주인공 5	남	35	재가 신도	할머니	2004
주인공 6	남	58	재가 신도	아버지	2003
주인공 7	남	59	재가 신도	어머니	2007

###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이론적 민감성 개발을 위해 49재 및 애도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숙독하였고, 49재를 수차례 집전한 경험이 있는 승려 2인과의 면담을 통해 49재의 불교적 의미, 이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 정보와 특성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을 통해 연구자는 불교의 49재, 유족들에 대해 편향된 고정관념이 없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해나갔다. 자료수집은 면담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면담이 더 필요한 경우 3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1회당 면담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초기 면담에서는 ‘누구의 49재에 참여하였습니까?’, ‘고인의 49재를 지내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면담이 진행될수록 ‘고인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재를 지내면서 망자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등으로 연구주인공의 애도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질문으로 초점화해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스트라우스와 코빈(2000)이 제안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고, 이렇게 도출된 개념들의 지속적 비교를 통해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추상화하는 개방코딩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 틀에 따라 재배열하는 축코딩 작업, 핵심 범주와 이야기 윤곽 만들기를 통해 범주 간 관련성을 이론으로 정교화해나가는 선택코딩과 과정분석을 시도하였다.<sup>36)</sup>

36) 위의 논문, 32-45쪽.

## 4. 연구의 엄격성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와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원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주인공들의 개별적 면담 자료 이외에 자료 해석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자 불교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49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료인 연구주인공들의 면담 자료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37)</sup> 다음으로 연구 동료지지 집단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는 49재 집전 경험이 있는 불교 의례를 전공한 박사과정생 승려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 박사 1인의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를 확인해줄 수 있는 연구주인공 2인(4, 7)의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자신들의 구술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떠한 곡해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축코딩 패러다임에 의한 분석<sup>38)</sup>

이 연구는 연구주인공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해 줄 단위 분석을

---

37) 근거이론은 자료수집 시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이론적 표집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표집을 통한 구술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상이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표집 노력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기존에 수집된 자료와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차메즈 저, 박현선·이상균·이채원 역, 『근거이론의 구성』, 학지사, 2013, 205-211쪽). 이 연구는 포커스 그룹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 중에서 49재에 부여하는 의미 중 '고인의 대한 원망감 표출', 49재 참여가 '주변인의 시선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외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이 연구의 개념을 비교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고인에 대한 원망감 표출'의 개념이 연구주인공 1의 구술 자료에서 포착되었지만, 나머지 연구주인공들의 구술 자료에서는 그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주변 시선에 대한 고려'란 개념은 이 연구주인공들의 구술 자료 속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38)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상위 범주와 개별 상위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구분하고자, 상위범주는 「, 하위범주는 ' '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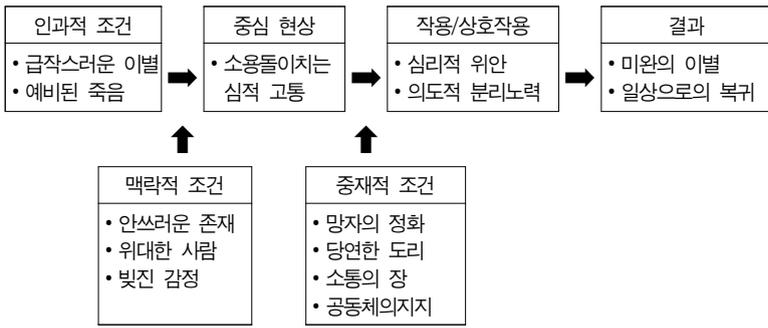


그림1-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패러다임 분석 모형

실시하였고, 사례 내, 사례 간 지속적 비교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의미를 찾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을 묶어 하위 범주 및 상위 범주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0개의 개념, 32개의 하위 범주, 14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개별 상위 범주들을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배열하였다. 축코딩이란 개방코딩에 의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범주들이 스트라우스와 코빈(2000)이 제안한 패러다임 틀에 따라 어떠한 논리적 구조로 연결되고 교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축코딩은 과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 절차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축코딩 패러다임을 통해,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 현상을 발화시키는 원인적 일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up>39)</sup> 분석결과, 이 연구의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고인과의 「급작스러운 이별」, 「예비된 죽음」 두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 (1) 급작스러운 이별

연구주인공들은 고인의 ‘예고 없는 죽음’과 이로 인해 그의 임종을

39)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0-121쪽.

지켜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게 된다. 또한 망자와의 영원한 헤어짐을 준비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애통해하며, 망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연구주인공 자신과 남은 가족의 처지가 가혹하다는 것을 한탄하기도 한다.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슴 아픈 그제 있었어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거동도 멀쩡하시고 괜찮았는데,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산소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셨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으니까…….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고… 그리고 제대 이틀, 삼일인가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예고 없이 돌아가셔버리니까… 임종도 못 지켜보고…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분이 할머니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시니까…….(연구주인공 5)

명예퇴직을 하고 어느 재단에 가서 이사를 하다가… 별안간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인가 프랑스 출장이 있대요,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 전이가 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죽음이) 이렇게 금방 올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시간이 원망스럽고……. 헤어질 준비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나도 애들도 아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너무 생겼다는 것이 가혹하다 싶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연구주인공 2)

## (2) 예비된 죽음

연구주인공들은 질병으로 인한 망자의 긴 투병생활, 노환으로 인해 그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고 망자의 투병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고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 또한 죽음을 앞둔 망자에게 연구주인공 스스로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고인의 마지막 삶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염려로 인해 자신의 정성 부족을 언급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주인공들의 의미부여를 ‘긴병에 효자 없음’, ‘정성의 부족’으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엄마가 6개월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중환실에 들어가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엄마가

살았으면 하고…….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내려갔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들한테 너는 엄마한테 왜 자주 안 가고 너는 얼마를 했고… 이제 마지막을 엄마를 보고 오는데… (엄마가) 다음 주에 올 거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한꺼번에 오면 그러니깐 내가 쉬었다가 올게’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아프고 죄스러웠어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연구주인공 1)

원래 몸이 많이 쇠하셔서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제가 장남이고 그래서 매일 뵈러 갔었죠. 그때는 직장이 서울이고 어머니는 수원에 계시고 저는 집이 서울이고,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한 4개월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여동생이 모시고 있었으니까, 아들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뵈는 거, 뭐 그거였죠. 한번이라도 더 손잡아 드리고……. 위독해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고생 많이 안 하시고 편하게 가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마음 써드린다고 썼지만 늘 부족한 것뿐이죠. 혹여라도 당신한테 잘못해드린 건 없나, 그 생각이 먼저였지요.(연구주인공 7)

##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이면서<sup>40)</sup> 중재적 조건보다는 좀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들이 해당된다. 이 연구의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안쓰러운 존재」, 「위대한 사람」, 「빛진 감정」이란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 (1) 안쓰러운 존재

연구주인공들은 망자를 자식과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존재’로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살아생전 강인하게만 보였던 망자도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던 어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을 아프게 회상하게 된다.

요즘은 80, 90까지 살아서 너무 오래 산다고 난리인데, 아직 70도 안 되었는데, ‘저렇게 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시누부(시누의

40)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1-122쪽. 역자인 김수지·신경림은 맥락적 조건을 전후관계로 번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자들이 번역한 전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의 많은 근거이론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락적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남편을 의미함)가 좀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누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잘돼서 먹고살 만하고 이러니깐, 조금 더 살면 좋은 세상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일찍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자…….(연구주인공 3)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엄마의 모습은 항상 강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엄마는 우리에게 모두 다 해주시고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어서 엄마가 안 힘든 줄 알았어요. 엄마는 정말 강하고 완벽하고 그랬던 엄마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면서 힘들셨을까. 엄마가 여자로서……. 아버지가 일찍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셨을까. 엄마도 여자인데. 얼마나 여자다운 삶을 살고 싶으셨을까.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생각이 제일 컸어요.(연구주인공 1)

## (2) 위대한 사람

연구주인공들의 애도 경험 과정에는 망자의 삶을 숭고하게 만드는 승화의 기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고인이 연구주인공 본인이나 주변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존경스러운 대상’으로 생전의 삶을 살아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거나, 망자의 생전 모습과 삶이 현재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거목 같은 존재’로 기억되면서, 생전 망자의 삶을 고귀한 삶으로 격상시키게 된다.

우리 아들은 항상 그랬어요.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 쓰라고 하면 항상 우리 아버지래요. 나는 그 점이 우리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운 점이에요. 우리 아들, 딸자식들에게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살아줘서……. 저는 그 점이 제일 존경스러워요.(연구주인공 2)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평생 해오신 사업으로 재산을 꽤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처분해서 없애기만 했어요. 당신 관리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거, 참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 나이 돼서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집안 어른으로서나 제 아버지로서나 참 큰 산이셨어요. 당신 그들에서 저희들 큰 걱정 없이 살게 하셨으니까…….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분이셨어요.(연구주인공 6)

## (3) 빚진 감정

고인과의 사별 후 연구주인공들은 살아생전의 그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거나 실망시켜드린 모습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죄송함,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가족으로서 고인에게 잘못된 게 많다는 후회스러움을 드러내는 구술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누구보다도 잘해주었던 망자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망자가 베푼어준 큰 사랑에 대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음’이란 하위 범주로 자신들의 빛진 감정을 구술하고 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컸는데……. 속도 많이 썩이고 집도 나가고 방황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속을 썩었죠. 밖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고 한니까 꼭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회사생활을 하는 것도 다,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자식 노릇 못 하고 산 게 큰 불효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이 있는 거고…….(연구주인공 6)

우리 남편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여자가 무슨 친구들이냐……. 저는 어차피 남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철칙이라서, 그것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저 걱정시킨 적도 없고, 여자, 술 문제 이런 걸로 저 마음고생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충실하고, 우리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내가 내생에도 다시 우리 만나자 했어요. 저는 내생에도 다시 우리 남편 만나고 싶어요.(연구주인공 2)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한테는 엄마보다는 할머니가 더 엄마 같았어요. 한번도 ‘귀찮다’ 이런 내색이 없으셨어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잘 해드리고 싶어도 잘 해드릴 기회가 없는 거죠. 할머니가 주신 사랑 십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연구주인공 5)

### 3) 중심 현상(phenomenon)

중심 현상이란 연구주인공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현상을 의미한다.<sup>41)</sup> 이러한 중심 현상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작스러운 이별」, 「예비된 죽음」과 같은 인과적 조건과 망자를 「안쓰러운 존재」, 「위대한 사람」, 「빛진 감정」으로 대상화하는 맥락적 조건들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심 생각을 「소용돌이치는 심적 고통」으로 상징하였다.

#### • 소용돌이치는 심적 고통

연구주인공들에게 고인의 죽음은 그가 영원히 자신들의 곁에 존재할

41)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3쪽.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상실감’으로 인해 망자의 빈자리에 대한 심리적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이들은 망자의 죽음으로 인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 서러움으로 표현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망자의 죽음이 어딘가에 머리를 뺨 부딪혀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순간처럼 ‘어안이 병병한 당혹스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무감각한 충격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스러운 상황의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된다.

장남이랍시고 평생 어머니 걱정만 끼쳐드렸지, 제가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일이 잘 안 풀려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제가 힘들 때면 꼭 전화가 오세요. ‘보고 싶다’, ‘내려와서 엄마 보고 가’, ‘밥 먹고 가’ 이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시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남자라 울지는 못해도 가슴이 찡한 거죠. 그런 어머니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허전함이 어떠했겠는지…….(연구주인공 7)

정말 초제 지낼 때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슬펐어요. 엄마가 사실은 다리를 절단하셨거든요. 의족을 끼고 수십 년을 생활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스쳐지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슬픈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안됐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도 좋지 않고……. 진짜 종일 슬프게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그런 슬픔이 며칠을 가더라고요.(연구주인공 1)

오빠가 그렇게 불안간 가버리니까, 이게 뭐가 싶은 거예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식구들은 ‘○○이 아빠, ○○아’ 하고 우는데 이게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멍하니 나는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야. 왜 머리를 뺨 부딪히면 멍해지잖아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저랑 지지고 볶고 한 오빠인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니까, ‘이게 뭐지, 뭐지’ 하는데…….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연구주인공 4)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 현상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구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그래서

42)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3-124쪽.

중재적 조건은 49재에 참여한 연구주인공의 애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인공들의 소용돌이치는 심적 고통을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망자의 정화」, 「당연한 도리」, 「소통의 장」, 「공동체의 지지」라는 4개의 범주를 배치하였다.

### (1) 망자의 정화

연구주인공들은 49재 참여 속에서 망자가 살아생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업을 씻어낼 수 있도록 고인의 ‘업장 소멸’ 의식을 행하고, 망자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내세 발원하기’를 통해 고인의 생전의 삶을 정화하면서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행위를 하게 된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절에 헌 신발 신고 가서, 새 신발로 바꾸어 신고 오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는 게 있어서 스님들도 참회하라고 하잖아요. 절에서 49재를 하면 법식(좋은 경전이나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을 하게 되니까……. 돌아가신 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생에서 오빠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은 다 내려놓고, 좋은 선업만 갖고 가시라고…….(연구주인공 4)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6남매 낳아 키우시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저세상 가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집안으로 가서서 좋은 부모 만나서 다음 생은 편하게 이어가시라고……. 이것만 계속 빌었어요. 어머니 좋은 데로 꼭 가시라고…….(연구주인공 7)

### (2) 당연한 도리

연구주인공들은 49재 의식을 망자를 위한 당연한 도리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들은 49재가 망자의 유언이었기에 그것은 유족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주어야 할 도리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예컨대 이들은 고인을 위한 49재 의식이 ‘유족된 도리’로서, 죽은 부모와 가족을 위해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 효도의 한 차원이라고 바라보았다. 또한 이들은 49재는 이유를 불문하고 ‘불교인이라면 당연한 일’로 행해야 할 종교적 의무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규범적 차원으로 49재를 이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머나가 급작하게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49재를 해야 한다……. 언니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나 떨어져 살았으니,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 말했어요. (언니는) 믿지는 않지만, 그건 해야 한다. 언니가 원하지 않아도 엄마가 원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셨을 때 이미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드리는 게 도리이다…….(연구주인공 1)

요새 49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굳어져 있어서……. 천주교인들도 다 49재는 하는데……. 불교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고 그것은 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의무 같은 거니까 오히려 안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굳이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연구주인공 3)

### (3) 소통의 장

연구주인공들의 49재 참여는 고인에게 자신이 평소 말하지 못했던 ‘속내 털어놓기’의 장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49재 과정 속에서 망자에게 평소 자신이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마음속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49재의 독특한 의식적 요소와 분위기로 인해 망자와 자신이 마치 함께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고인과 소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것을 ‘교감의 장’이란 하위 범주로 해석하였다.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오빠가 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속으로 아버지한테 ‘벌써 죽으려고?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죽으려고’ 내가 이런 항의를 마음속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은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아직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가봐’ 아직 원망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나도 한풀이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건강하게 살 용기를 줘.’ 제가 오빠한테 막 이런 말들을 했어요.(연구주인공 4)

스님들 행동하시는 거, 목탁 소리, 경전, 계속 부처님 전에 우리가 절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내 몸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 착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무언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가랑 더 진한 교감을 하게 되는 거고……. 시누님이랑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그렇게 살아온 인생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거기서는 다 교차하잖아요 다 풀고 가세요, 더 좋게 태어나세요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계속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당신과 다 통하는 거지요.(연구주인공 3)

#### (4) 공동체의 지지

연구주인공들은 49재를 참여하면서 망자 상실로 인한 자신들의 심적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찰 ‘스님의 위로’를 공동적으로 구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절에서 동거동락하는 신도들이 49재에 함께 참여해주거나, 뒤에서 말없이 자신들을 다독여주고 지켜봐 주는 ‘신도 지지’를 통해 고인을 잃은 아픔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

스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들어주시잖아요. 잔잔하게 이야기를 스님이 해주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해주시니까, 평소 엄마같이 생각했던 스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끝나고 나면 스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 감정을 털어낼 수 있고……. 저는 49재 다 끝나고도 계속 절에 왔어요. 저한테는 의지처가 많이 돼서…….(연구주인공 1)

절에 도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해주니까 49재 끝나고도 1년 내내 거의 매일 절에 갔어요. 저는 진짜로… 보살님들이 늘 함께해주고 또 스님들이 보살펴주시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뭐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불 드리고… 같이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고. 그분들 없었으면 저는 정말 도태되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먹는 이런 것도 못 먹고……. 저도 또 도반님들 안 좋은 일 생기면 함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연구주인공 2)

####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중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중심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는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이 연구에서 연구주인공들의 「소용돌이 치는 심적 고통」이란 중심 현상에 대처하는 실제적인 의도적 행위인 작용/상호작용을 「심리적 위안」, 「의도적 분리 노력」으로 상징하였다.

##### (1) 심리적 위안

연구주인공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도리인 49재 의식을 통해 망자를 정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변화시켜나간다. 이것은 자신들의 49재 의식행위를 통해 망자

43)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4-126쪽.

가 더 좋은 내세를 누리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연결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주인공들의 의미부여를 ‘천도되었다는 믿음’이라는 하위범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49재의 과정 속에서 고인에게 유족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심리적 자기 위안을 통해 ‘평온해진 마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 혼자 스스로는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때는 제가 불교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어도 우리 할머니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다... 왜 그러잖아요.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은 좋은 데서 다시 태어난다고.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할머니는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연구주인공 5)

막제가 다가올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아! 우리 시누 평생 나쁘게 살지 않았고, 우리도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잘했다. (49재) 해드리길 잘했다. 안 했으면 마음 한구석이 늘 편하지 않았을 텐데.....(연구주인공 3)

## (2) 의도적 분리 노력

연구주인공들은 49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고인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내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들이 망자 잃은 슬픔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경우, 고인이 저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떠도는 혼령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자신들이 고인을 계속 그리워하거나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을 망자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합리화 기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것을 ‘구천에서 떠돌 수 있다는 두려움’, ‘고인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임’이란 하위 범주로 개념화하였다.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엄마 뒤도 쳐다보지 말고 보내라..... 내가 엄마를 가장 애달파하는 것을 아시니까, “내가 엄마 잘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떠나보내야 한다, 안 그러면 엄마가 못 가신다, 영가가 못 떠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터 엄마 생각하지 않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못 가시고 외롭게 떠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연구주인공 1)

저는 49재 끝나고 아버지 보낸 슬픔이 있긴 했지만, 제가 남자인지 몰라도 빨리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해하고 서글퍼하는 거를 부모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또 남자이기도 하고 여동생이나 가족들 보는 앞에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좀 그렇고……. 일부러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연구주인공 6)

## 6)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이란 의도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44)</sup>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위안」, 「의도적 분리 노력」이라는 작용/상호작용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완의 이별」,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범주로 구성하였다.

### (1) 미완의 이별

연구주인공들은 49재 의식을 통해 망자가 극락왕생했을 것이란 의미부여와 함께 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슬픔과 그리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의도적 분리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덮쳐오는 그리움’으로 인해 고인을 잃은 슬픔에 다시 빠지게 되거나 망자에 대한 상실감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가슴속에 묻어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괜히 내 서러움에 그냥 그런데… 요즘도 눈물이 많이 나요. 지금도 애 아빠가 어디 멀리 갔다가 올 것만 같고 그런데… 지금도 여운이 많이 있어요. 빨리 보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왜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보고 싶고, 생각나고, 아쉽고…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연구주인공 2)

그게 저는 엄마를 완전하게 떠나보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엄마한테 인사는 하지만…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혹시라도 엄마한테 안 좋을까봐……. 일부러 잊자 하는 것이지… 가슴속에 있는 그 애달픈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냥 내 가슴에 덮어두고 사는 것이지……. (연구주인공 1)

### (2) 일상으로 복귀

44) 안젤름 스트라우스·줄리에트 코빈 저, 김수지·신경림 역, 앞의 책, 126-127쪽.

연구주인공들은 그들에게 놓여 있는 삶이 주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망자를 잃은 고통 속에서만 빠져 있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인으로서 '먹고사는 것이 우선인 인생',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가족에게 충실하기'라는 하위 범주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빠 보내고 나서... 우리 집안의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오빠도 많이 외롭고, 힘들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솟아오르니까... 사실 49제 지냈다고 해도 그 무거운 감정들이 싹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도 어떡해요.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 생각 속에 마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려야 했어요. 빨리 잊고 내 생활로 돌아오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연구주인공 4)

제가 아무래도 장남이고, 아들 혼자이다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집안의 기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가족들 돌보고, 가족들한테 잘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생각을 했던 거고.....(연구주인공 6)

## 2. 핵심 범주의 구성과 이야기 윤곽 전개

핵심 범주란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연구의 중심 주제를 몇몇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다.<sup>45)</sup> 그리고 이야기의 윤곽(story line)은 몇몇 단어로 요약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범주 간 연관성과 범주들 내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 연구에서는 15개의 범주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핵심 범주를 '망자 상실'에 따른 심적 고통이 던져주는 새로운 의미 찾아가기의 여정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주인공들은 예고 없는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심적 충격을 받거나 그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유족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움과 염려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주

45) 위의 책, 138-139쪽.

46) 위의 책, 141-144쪽.

인공들의 심리적 충격은 망자에 대한 복잡다단한 감정 표출로 이어지는 데, 이것은 평생 자신들만을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의 고단했던 생전 삶에 연민을 느끼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 또한 이들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이고 강인한 삶을 살았던 망자에 대해 존경을 표하게 되면서, 고귀한 인생을 살다간 존재로 승화해 나간다. 더욱이 이들은 망자를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자신들을 보살피주고 사랑해주었던 망자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주인공들의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은 망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무감각한 당혹스러움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의 갈래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 계속 젖어 있기보다는 그러한 슬픔을 망자 사후를 위한 기도행위로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망자가 살아생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업들을 모두 씻어내고 더 좋은 내생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발원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49재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망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여기에 사찰공동체 구성원들의 종교적 지지가 합쳐지면서 49재를 자신들의 당연한 도리적 책임으로 이해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49재 의식을 통해 망자의 사후세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망자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 있을 경우, 망자의 영혼이 저승세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 수 있다는 종교적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고인이 결코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합리화 기제 속에서, 고인과 의식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주인공들은 망자에게 공식적인 이별을 고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의 이별은 불지불식간에 밀려오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픔으로 인해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미완의 이별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망자 상실로 인한 심적 고통을 가슴속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삶, 예컨대 먹고사는 문제와 돌봐야 할 가족을 위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게 된다.

연구자는 앞에서 전술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재구성해봄으로써,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단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포착할 수 있었다. 먼저 이들이 망자 죽음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는 단계,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표현되는 감정 표출의 단계, 이 과정 속에서 망자와 교감하고자 하는 소통의 단계,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노력 속에서 유족들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심리적 위안의 단계, 이것을 통해 망자와의 공식적 이별을 하지만, 망자 상실에 대한 심적 고통은 여전히 감정적 잔상으로 남아 있는 미완의 분리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이란 축코딩 패러다임 틀에서 도출된 범주의 변화와 핵심 범주에 따른 이야기 윤곽 구성을 통해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조건들이 어떠한 순서와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이 연구는 상술한 축코딩과 핵심 범주 구성에 따른 이야기 전개를 통해,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현상을 심리적 충격, 감정 표출, 소통 시도, 심리적 위안, 미완의 분리 등 5단계로 분석하였다.

#### 1) 심리적 충격

연구주인공들에게 고인은 그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었던 중요한 타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은 그 타자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관계 맺기와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삶의 모든 역동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연구주인공들은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망자가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이 주는 허탈감,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무감각한 당혹스러움 등의 절망적인 심리적 기분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연구주인공들에게 이때의 기분은 그것의 의미가 분명하게 부여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47)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앞의 책, 44쪽.

## 2) 감정 표출

감정 표출의 단계는 망자의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구주인공들의 불완전 심리적 기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인의 힘겨웠던 삶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인한 안쓰러운 감정, 연구주인공들의 삶에 교훈을 던져줄 만한 망자의 강인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인정과 존경심,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망자의 일방향적인 사랑과 헌신을 실망으로만 되돌려준 것에 대한 미안함, 망자의 큰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 등의 다양한 감정 표출로 변주된다. 그런데 연구주인공들은 이러한 감정 표출을 통해 망자의 생전 삶과 그의 존재성을 승화시켜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주인공들은 망자의 죽음을 승화하는 상징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심적 고통을 슬픔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 3) 소통 시도

이 단계는 연구주인공들이 망자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의미를 표출하게 되면서, 망자와 소통하고자 하며 이것을 통해 망자와 교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화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 시도의 노력 속에는 망자의 업장소멸, 극락왕생의 발원과 같은 망자를 정화하는 행위, 망자와 직·간접적 대화 시도를 통해 연구주인공 자신들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존재하며, 그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주인공들의 심리적 해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4) 심리적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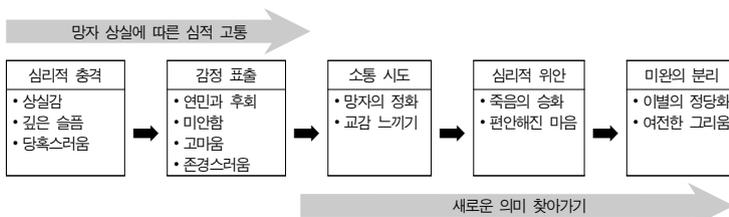
심리적 위안 단계는 연구주인공들이 망자를 정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해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망자 상실에 대한 심적 고통을 자기 위안으로 보상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연구주인공들이 망자의 사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믿음과 망자 죽음으로 인한 불행감을 조금씩 나누어 지려는 종교공동체의 배려 속에서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심적 고통들을 서서히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심리적 위안의 단계는 연구주인공들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사찰 공동체의 종교적 믿음에 기반하여 망자 사후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망자 상실이 주는 아픔의 구멍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게 된다.

### 5) 미완의 분리

이 단계는 연구주인공들이 고인과의 영원한 헤어짐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종교적·사회문화적 통념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연구주인공들은 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슬픔과 그리움이 망자의 혼령을 극락왕생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승과 구천 사이를 떠돌게 할 수도 있다는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불안 의식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망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고인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 기제를 통해 망자와의 이별을 정당화해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화 기제에는 고인이 원하는 것을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효의식이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주인공들은 종교적 불안의식과 망자에 대한 효의식에 기반하여 망자를 위해 스스로가 고인과 분리되려는 의도적 노력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리의 노력은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이 여전히 연구주인공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주인공들은 망자와의 미완의 분리 속에서 자신들의 일상적 삶을 꾸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미완의 분리 단계는 연구주인공들이 상실감 속에서 망자와 다시 아프게 재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범주: 망자 상실에 따른 심적 고통이 던져주는 새로운 의미 찾아가기의 여정

그림2-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 변화 과정

## V. 맺음말

이 연구는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에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사회문화적 맥락, 애도 경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애도 현상을 분석하였다. 소수의 연구주인공(7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현상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에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다양한 감정을 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망자를 잃은 슬픔, 상실감, 당혹스러움 등의 감정과 함께 망자 살아생전에 충분히 잘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죄책감, 후회스러움 등의 부적 감정이 존재하였다. 반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었던 망자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본받을만 한 인생을 살다간 망자에 대한 인정과 존경심 등의 긍정적 심리 기제들이 존재하였다.

둘째, 불교인 유족들의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맥락은 망자의 죄업 씻기와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종교적 믿음과 이러한 믿음에 기반한 종교 공동체의 지지가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망자에 대한 유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전통적 효의식이 불교인 유족들의 심리적 기제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속에서 불교인 유족들은 망자와 소통하고자 하며, 이속에서 이들은 망자의 생전 삶과 사후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변화는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망자의 존재성과 죽음을 다양한 감정적 의미로 드러내는 감정 표출, 이를 통해 망자와 교감하고자 하는 소통 시도, 망자의 죽음을 승화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심리적 위안, 망자와의 공식적 헤어짐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상실감을 안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미완의 분리 등 5단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49재 참여를 통한 불교인의 애도 경험에는 망자 정화와 유족

해원의 이중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 연구<sup>48)</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적 사후 의례가 갖는 정화와 해원의 기능이 49재 애도 의례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연구는 종교적 사후 의례를 통한 망자의 정화와 해원에 초점을 둔 반면, 이 연구결과에서는 망자 정화 및 그와의 소통 시도를 통해 고인과의 심리적 화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 스스로의 해원에 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49재 의례는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심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의식적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49재는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심리를 지지하는 좋은 의식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족들의 애도 반응을 만족할 만하게 해소하는 충분조건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인 유족들이 49재를 통한 망자와의 이별을 온전성을 갖추지 못한 미완의 분리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충분한 애도를 위하여 최소 1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sup>49)</sup> 예컨대 이러한 이 연구의 결과는 49재가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대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망자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교계는 49재 애도 의례와 더불어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과정을 좀 더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보완적 방법에 대한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49재라는 애도 의례는 망자 상실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좀 더 적극적인 애도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현대인의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이다. 예컨대 49재라는 애도 의례에는 고인과의 사별로 인한 불교인 유족들의 깊은 비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식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망자 죽음에 따른 상실감과 슬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난 사람들을 강인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유족들은 충분한 애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애도를 억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sup>50)</sup>

48) 박미경, 「전통 굿(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기제」, 『한국무속학』 제30집(2015); 구미래, 앞의 논문(2009).

49) 김진영, 「애도과정의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와 상담』 제15호(2010), 122-149쪽.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49재와 같은 종교적 사후 의례는 유족들이 망자에 대한 애도과정에 깊게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얻고 이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51)</sup> 그렇다면 망자의 죽음과 사후에 대한 유족들의 종교적 믿음이 어떻게 유족들의 심리사회적 지지와 치유로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개별 종교의 독자적인 애도 상담 프로그램 혹은 다수 종교의 장점을 반영한 전문적 애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을 분석하면서 재가신도만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승려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불교계에는 49재 이외 애도 우란분재, 예수재, 수륙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후 의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후 의례에 참여하는 불교인들의 애도 경험과 그들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추적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50) 베레나 카스트 저, 채기화 역, 『애도』(궁리, 2013), 175-177쪽.

51) 근래에는 가톨릭신자의 경우 사후 49일 되는 날 연미사 올리는 것을 통해 49재가 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망자를 위한 전통적 사후 의례로서 그 종교의 방식과 성격에 맞게 수용,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일영, 앞의 논문, 141쪽). 이러한 측면에서 49재는 망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한국 종교의 전통적 애도 의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의미부여와 재현방식은 개별 종교가 가진 교리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인·최혜경, 「여성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4호, 1998, 95-107쪽.
-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19호, 2011, 244-284쪽.
- 고영섭, 「불교가 한국인의 생사관에 끼친 영향」. 『한국불교사연구』 제7호, 2015, 70-122쪽.
- 공수연·양성은,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0권 5호, 2012, 885-896쪽.
- 구미래, 「한국불교죽음의례의 유형과 최근의 변화」. 『죽음의례와 죽음 한국사회』, 모시는 사람들, 2010.
- \_\_\_\_\_,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민속원, 2009.
- \_\_\_\_\_, 「의례주체를 통해본 49재의 존재양상과 문제인식: 대한불교조계종 의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37집, 2008, 297-328쪽.
- 김석, 「햄릿의 파국과 쌍용차 노동자들」. 『애도 받지 못한 자들: 자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쿠북, 2012.
- 김진영, 「애도과정의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와 상담』 제15호, 2010, 122-149쪽.
- 네이버, 『국어사전』. 2016a.
- \_\_\_\_\_, 『두산백과』. 2016b.
- \_\_\_\_\_,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c.
- 데이비드 스윗저 저, 최혜란 역,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애도』. 학지사, 2011.
- 디큰 저, 오진탁 역,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궁리, 2002.
- 박미경, 「전통 굿(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기제」. 『한국무속학』 제30집, 2015, 139-160쪽.
- 박일영, 「천주교 일생의례의 종교적 특성과 세계관」. 『비교민속학』 제39집, 2009, 129-152쪽.
- 베레나 카스트 저, 채기화 역, 『애도』. 궁리, 2013.
- 손봉호, 「고통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집, 2005. 40-64쪽.
- 손의성,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권, 2007, 289-322쪽.
- 안양규,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교육』. 모시는사람들. 2014.
- 원지영,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영성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철학』 제27권, 2013, 214-236쪽.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4.
- 이범수, 「四十九齋에서의 遺族心理 治癒 촉진 방안」. 『한국불교학』 제49호, 2007,

432-479쪽.

- \_\_\_\_\_, 「유교 상례와 불교 우란분제 · 49제에서의 유족심리」.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2008, 105-145쪽.
- 전명수, 「종교사회복지담론의 재고찰: 비판적 성찰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제20호, 2013, 270-317쪽.
- 전미영,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6호, 2000, 1569-1579쪽.
- 정연강 · 김경희 · 최미혜 · 권혜진 · 정혜경 · 안옥희 · 박성학, 「미망인의 사별경험」. 『중앙간호논문집』 제2권 1호, 1998, 1-16쪽.
- 정진홍, 「죽음의례와 죽음」. 『죽음의례와 죽음 한국사회』, 모시는 사람들, 2010.
- 차매즈 저, 박현선 · 이상균 · 이채원 역, 『근거이론의 구성』. 학지사, 2013.
- 캔다 · 펄만 저, 박승희 · 이혁구 외 역, 『종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에서 얼알의 다양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 통계청, 「2013 사망원인 통계」. 『인구동향』, 통계청, 2013.
- 홍법원 편집부 저, 『불교학대사전』. 홍법원, 1994.
-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 Bonanno, George, A, "Grief and emotion: A social-functional perspective."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 Kübler-Ross, Elisabeth & Kessler, David, *On Grief and Grieving: Finding the Meaning of Grief Through the Five Stages*. Scribner, 2005.
- Wolfelt, Alan D, *Death and Grief: A Guide for clergy*. Indiana: Accelerated Development, 1988.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불교계의 대표적 애도 의례인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현상을 분석하여, 종교사회복지의 실천 영역 안에서 숙고될 수 있는 유용한 함의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가'라는 연구 문제를 상정하고, 불교인 유족들이 49재의 과정 속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경험하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이고, 이들의 애도 경험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rbin)이 제안한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10개의 개념, 32개의 하위 범주를 통해, 「급작스러운 이별」, 「예비된 죽음」, 「소용돌이 치는 심적 고통」, 「안쓰러운 존재」, 「위대한 사람」, 「빚진 감정」, 「망자의 정화」, 「당연한 도리」, 「소통의 장」, 「공동체의 지지」, 「심리적 위안」, 「의도적 분리 노력」, 「미완의 이별」, 「일상으로의 복귀」 등 14개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을 통합하는 핵심 범주는 '망자 상실에 따른 심적 고통이 던져주는 새로운 의미 찾아가기의 여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의 변화과정은 심리적 충격, 감정 표출, 소통 시도, 심리적 위안, 미완의 분리 5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49재에 참여한 불교인 유족들의 애도 경험은 망자 정화와 유족 자신의 해원이라는 이중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9재는 불교인의 애도 경험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의식적 장치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유족들의 애도를 충분히 지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재는 유족들이 적절한 애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애도를 억압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망자 상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16. 3. 18.

**심사일** 2016. 4. 24.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49재(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불교인 유족(the bereaved Buddhist family), 종교 사회복지(religious social welfare), 애도 의례(condolences ritual), 애도 경험(condolences experience), 근거이론(grounded theory)

## Abstracts

### A Study on the Mourning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Participated in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Lim, Hae-young**

This study analyzes the phenomenon of the bereaved family who participated in the typical Buddhist mourning ritual,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that may be useful and considered as appropriate funeral custom in the practice of religious aspect of social welfare in Korea. Firstly, I assum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the significance of mourning experience of the bereaved who participated in the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appears. Then I proposed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 that how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ny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influence in terms of the socio-religious and cultural context. And I researched how the mourning experience of the bereaved appears through what process of change. It was analyzed by utiliz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

Through the analysis of 110 concepts, 32 sub-categories, 'sudden parting', 'death that are preliminary', 'swirling mental suffering', 'pathetic being', 'great man', 'emotional owed', 'dead person's soul purification', 'reasonable duty', 'the field of communication', 'community support', 'psychological comfort', 'deliberate separation efforts', 'farewell unfinished', and 'return to the everyday life' are 14 top categories. And a key category that integrates the experience of mourning the bereaved Buddhists was presented as psychic pain of this journey to visit the new meaning to the loss of the deceased. In addition, the five transformation process of grieving experiences of the bereaved appeared as a psychological shock, emotional expression, communication attempts, psychological comfort, separate stages unfinish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ual significances i.e. the purifying means for the dead and psychological comfort for the bereaved family through the condolences experience of Buddhist mourning ritual,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Although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considered as a good conscious devices that can support a condolences experience of Buddhists, but was not enough to see that it fully supported the mourning of the bereaved. Nevertheless, in the modern society suppression tendency of condolences for the dead in stead of fully appropriate morning ritual, 'forty-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has the positive suggestion that it will be a socio-psychological support application program to ease the shock for the loss of the dead.

